
공무국외연수보고서

- 서유럽 3개국(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 2015.10.26.~11.3. -



시 흥 시 의 회

목 차

I. 개 요	3
1. 연수목적	3
2. 기본사항	3
3. 연수일정	4
II. 연수국 현황	6
1. 이탈리아	6
2. 스 위 스	7
3. 프 랑 스	8
III. 주요 연수 내용	11
1. 볼로냐 협동조합	11
2. 파리 하수처리장	14
3. 라데팡스 개발지구	16
IV. 맺으며	20

I. 개 요

1. 연수 목적

- 유럽 선진국의 보다 진전된 지역개발, 협동조합, 도시환경 등에 대한 정책 벤치마킹
- 역사·문화 자산의 관광자원화 사례 및 유럽 선진문화 체득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
-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및 전문성 함양에 기여

2. 기본 사항

- 연수국가 : 서유럽 3개국(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 연수기간 : 2015. 10. 26. ~ 11. 3. (8박9일)
- 연수인원 : 10명 (의원 및 관계직원)

연번	직위	연수자
1	의장	윤태학
2	도시환경위원장	조원희
3	의원	김영철
4	의원	문정복
5	의원	김찬심
6	도시환경 전문위원	박성식
7	직원	김남현
8	직원	원홍식
9	직원	박미숙
10	직원	김미향

3. 연수일정

일자	장소	업무수행내용
제1일 10/26(월)	인천 로마	- 인천 출발 - 로마 도착
제2일 10/27(화)	로마	- 바티칸 박물관 - 로마 도시 환경 시찰 (역사와 도시환경의 조화로운 운영 사례)
제3일 10/28(수)	로마 볼로냐 베니스	- 공식방문 : 볼로냐 주택 협동조합 (협동조합 운영 사례연구 및 사회 양극화 대안)
제4일 10/29(목)	베니스 밀라노	- 산마르코광장, 두오모성당, 스칼라극장 등 (역사문화유산 및 건축물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방안)
제5일 10/30(금)	밀라노 인트라켄 웅프라우 인터라켄	- 웅프라우 (관광자원으로서의 자연환경 보존 및 조화)
제6일 10/31(토)	인터라켄 제네바 파리	- 루브르 박물관
제7일 11/1(일)	파리	- 오르세 미술관, 베르사이유 궁전 등
제8일 11/2(월)	파리	- 공식방문 : 파리 하수처리장 (선진 하수처리체계 연구 및 벤치마킹) - 공식방문 : 라데팡스 개발지구 (계획개발도시 운영 사례 및 지역 지원 방안) - 파리 출발
제9일 11/3(화)	인천	- 인천 도착

II. 연수국 현황

1. 이탈리아

○ 국가개요



- 수도 : 로마
- 언어 : 이탈리아어
- 면적 : 약 30만km² 한반도의 1.36배
- 인구 : 약 6,185만명 (세계 23위)
- GDP : 약 1조8,190억 달러 (세계 8위)
- 통화 : 유로 (1EUR=1240.63원)

○ 경 제

- 이탈리아의 경제는 다양화된 산업 경제로 프랑스, 영국과 총생산과 1인당 생산이 비슷하다. 그러나 경제 구조는 아직까지 기업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진 북부와 농업 중심으로 실업률이 20%에 달하는 남부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서유럽의 인근 나라들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의 수가 많다.

○ 정 치

- 이탈리아 의회는 양원제이며, 상원은 315석(임기 5년의 선출직 315석, 종신직 7석 별도)이고, 하원은 630석(임기 5년)이다. 2008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른 의석 분포는 다음과 같다. 하원은 우파연합(연립여당)이 344석, 좌파연합이 246석, 중도연합당이 36석, 기타 4석이고, 상원은 우파연합(연립여당)이 174석, 좌파연합이 132석, 중도연합당이 3석, 기타 6석이다.

2. 스위스

○ 국가개요



- 수도 : 베른
- 언어 :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 면적 : 약 4만1천km² 한반도의 0.187배
- 인구 : 약 812만명 (세계 96위)
- GDP : 약 6,769억7,900만 달러 (세계 19위)
- 통화 : 스위스 프랑 (1CHF=1149.23원)

○ 경 제

- 스위스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선진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여러 통계에서 일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로 선정될 만큼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다. 2011년 일인당 부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국내 총생산은 세계에서 19위, 구매력 평가에서는 36위이다. 작은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0위의 수출국이다.

○ 정 치

- 스위스 정치는 1848년 연방 헌법에 따라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 사항에 참여한다. 또한 스위스 의회는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 반면 투표율은 40%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3. 프랑스

○ 국가 개요



- 수도 : 파리
- 언어 : 프랑스어
- 면적 : 약 64만km² (한반도의 2.913배)
- 인구 : 약 6,655만명 (세계 21위)
- GDP : 약 2조4,226억 달러 (세계 6위)
- 통화 : 유로 (1EUR=1241.33원)

○ 경 제

- 프랑스의 경제는 1947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현대화 계획, 경제 사회 개발계획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 농업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넓은 국토와 다양한 기후, 농업에 적합한 토지로 인하여 유럽에서 드문 농업생산국이 될 수 있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자동차, 기계,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이 있다. 랑콤, 루이뷔통, 샤넬 등의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가 있다. G7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관광지로 루브르 박물관, 몽피두센터, 에펠탑, 리옹시 등이 유명하다.

○ 정 치

-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초월적 위치에 있다. 또한 대통령의 모든 공적 활동을 통치 행위로 간주하는 전통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따르는 인원구성, 예산책정, 회계감사 등의 사항은 의회나 감사 기관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프랑스 대통령은 주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한다. 반면,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입법부는 하원 우위의 양원제이지만, 상원도 개헌 문제에 관하여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서 제외된다.

Ⅲ. 주요 연수 내용

1. 공식방문 : 볼로냐 협동조합

○ 방문목적

- 유럽연합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5개 도시 중 한 곳인 볼로냐의 주택건설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역의 복지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사례를 연구하고 급격한 공동체 해체 및 양극화 사회에 대한 대안점 모색

○ 주요내용

<볼로냐 市>

- 인구 대략 37만명으로 경남 진주시와 비슷한 규모
 - 볼로냐에는 약 400여개의 협동조합이 있음
 - 볼로냐 전체 경제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음
 - 볼로냐 상위 50개 기업 중 협동조합기업이 15개임
- 볼로냐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주도(州都)로 ‘협동조합의 천국’으로 불린다. 볼로냐에는 약 400개의 협동조합이 있어, 식품·의류 등의 생필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협동조합에서 살 수 있다.
- 볼로냐 대부분의 시민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임금은 이탈리아 전체 평균보다 2배가 높고, 실업률은 3%초반에 불과하다. 사회주의 등 좌파 운동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마치 ‘지역문화’처럼 되었다.

- 우리 의회가 방문한 곳은 주택 협동조합이다. 이곳 사람들은 집을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을 이용한다고 한다.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협동조합과 임대를 주로 하는 협동조합, 두 종류로 나뉜다. 볼로냐에 있는 주택 가운데 35%가 주택 협동조합에서 지어 공급한 것으로, 서민주택 가격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볼로냐 사람들은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주택 협동조합에서 지은 주택을 더 신뢰하고 선호하는데 협동조합은 건축 원가를 제외한 마진이 적기 때문에 주택을 비교적 싸게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주택 협동조합이 재정적으로 탄탄하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 지나도 주택 수리 등 사후관리가 좋기 때문이다.
- 볼로냐를 비롯해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이 발달한 데는 세제 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익의 100%에서 27.5%의 세금을 내는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수익의 30%에서 27.5%의 세금을 내고 70%는 면제다.



▲ 볼로냐 주택협동조합 간담회

주요 질의응답

Q : 운영비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A : 연간 8,500만 유로(한화 1054억) 정도의 수익이 나며, 해당 금액은 건축물에 대한 수리비 및 조합 인건비로 쓰인다. 조합장은 조합원 선거에 의해 3년에 한 번씩 선출되며, 3회 연임이 가능하다.

Q :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A : 330유로(한화 41만원)의 출자금을 내면 누구나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합원이 되면 조합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현재 82개가 비어있고 2,200명이 신청 및 대기 중이다. 언제부터 조합원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조정되며, 볼로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Q : 주택은 조합에서 직접 지어 임대하는 형태인지?

A : 협동조합은 건축 원가를 제외한 마진이 적기 때문에 주택을 비교적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협동조합들이 이 지역에만 여러 개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주택을 새로 지을만한 공간이 없으며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조합은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하여 임대 형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Q : 시(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A : 저소득층의 경우 협동조합이 아니라 볼로냐 시에서 임대주택의 형식으로 지원을 해준다. 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의 운영을 위한 수익의 안정성을 위해 저소득층이 아닌 임대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출자할 수 있는 중산층에 가까운 계층들이 주로 이용하게 된다. 일반 임대료에 비해 협동조합의 임대료가 1/2 정도 더 저렴하므로 대기자가 많다.

Q : 협동조합 간의 협동조합 사례도 있는지?

A : 이곳 볼로냐에는 협동조합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 협동조합간의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레가코프는 단위 협동조합이 파산하거나 어려워 질 때 ‘조합기금’을 투자해 실업자를 다른 협동조합에 취직시켜 주거나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2. 공식방문 : 파리 하수처리장

○ 방문목적

- 선진 하수처리시설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 시설과의 비교 및 하수처리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

○ 주요내용

- 파리 시내 하수도는 흐르는 강의 개념을 도입하여 하수시설과 상수 시설을 설계하였으며 파리 시내 폭 2m 이상의 모든 도로 밑에 자체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는 의무적으로 하수관로로 보내야 한다는 법령에 의해 규제한다.
- 오수와 우수를 따로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빗물도 하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었으며, 하수관거 총 길이는 2,400km이다. 지상의 도로보다도 오히려 하수도 길이가 길다. 19세기 후반 쉐 주의 지사 오스망의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었는데 4개의 간선에 70km의 부간선이 있고 130km의 지선과 385km의 분지선이 지하에 깔려 있다.
- 150년 전에 만든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지금은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관로가 모두 지하 하수도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파리에선 전신주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상의 모든 도로에 길거리 이름과 번지수가 있듯이 지하 하수도 통로에도 지상과 똑같은 주소가 적혀있다. 수리공들이 지나가면서 각 건물의 배수구멍을 보면 어떤 하수도가 막혔는지 금방 알 수 있다.
- 실제 하수도의 한 구간을 이용하여 견학코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수도 냄새도 나고 실제 쥐도 볼 수 있다. 하수도 내 청소를 위해 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며, 개체수 조절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 규칙적으로 정리 작업을 한다고 한다.



- 하수처리박물관 내에는 실제로 이어지는 터널 곳곳마다 집집마다 버리는 물들이 어떻게 하수도로 모이는지, 하수처리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을 절약하면 얼마나 좋은지 등등이 재미있는 그림과 설명으로 안내되어 있다. 파리 하수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보나 역사를 모두 자료로 보여주고 있다.
- 성공한 도시계획이 몇백년 동안 도시의 기반을 든든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파리하수도박물관은 이미 대도시였던 파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현대의 파리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드러낸 곳이었다.



3. 공식방문 : 라데팡스 개발지구

○ 방문목적

- 지역 개발에 있어서 기업유치 및 교육, 주거, 관광, 문화까지 아우르는 지원 시스템 이해

○ 주요내용

<라데팡스 市>

- 위치 : 프랑스 파리 북서쪽 6km 지점
- 인구 : 11만 5천명
-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 지역으로 약 500여개의 회사가 있음
- 기업 관련 유동인구는 30만명
- 기업 사무실 면적은 총 350만 제곱미터
- 라데팡스 대학이 위치하며 학생은 4만7천여 명
- 상주 주민은 2만명 정도로 대부분이 저소득층임

- 라 데팡스는 파리 중심에서 서쪽으로 6km가량 떨어진 곳에 계획적으로 건설한 부도심이다. 46만평 부지 위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도로와 철도는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소음과 공해가 적다. 또 건축물은 감각적인 조각품과 적절히 배치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 많은 이들이 라 데팡스에 ‘새로운 개념의 미래 도시’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도시 설계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라 데팡스식 개발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이 지구의 상징은 1989년 7월 14일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세운 신개선문 ‘그랑드 아르슈(Grande Arche)’다. 거대한 아치형 건축물은 덴마크 건축가 스프레켈슨의 작품으로 높이는 105m에 이른다. 파리 중심에 위치한 개선문의 두 배 크기다.

- 라데팡스는 195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계획도시로 파리의 서부 외곽에 건설된 현대식 상업지구다. 국제적 규모와 수준의 업무지구를 조성하여 개발한계에 부딪친 파리의 업무기능과 인구를 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 라데팡스는 유명한 대기업의 본사가 밀집해 있는 유럽 최고의 업무 지역이며 아침이면 파리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등 하루 유동 인구가 18만에 이른다.
- 라데팡스가 경제 신도시로 불리며 유럽 비즈니스 요충지로 불리는 이곳이 성공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입체적인 교통시스템이다. 라데팡스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자가용, 버스나 지하철 등 모든 교통은 지상과 철저히 분리해 지하에 배치했다.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해 모든 자동차가 라데팡스 광장 지하를 통해 지나가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넓은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 관광객이 편히 찾을 수 있는 이유다.
- 라데팡스가 신도시 개발에 있어 전면개발방식을 취하는 우리나라와 차이를 이루는 특징 중의 하나는 신도시 개발 시 기존 아파트 등의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신도시에 사람들이 상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이는 비즈니스가 끝나는 시간 이후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라데팡스는 기업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애쓰고 있다.

사람들이 더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로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자동차도로도 더 간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풍경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사람을 생각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는 라데팡스의 도시 계획이 지금의 대표적인 경제 신도시로 불리는 라데팡스를 만들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 라데팡스 개발지구 브리핑

주요질의응답

Q : 기존 주민의 이주 문제 등 반발은 없었는지?

A : 기존 3만 7천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민은 강제이주 형식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으며, 일부는 계속 거주하기도 했다.

Q : 라데팡스 토지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A : 라데팡스는 드골 대통령 정부의 야심찬 계획으로 만들어졌다. 도시 자체가 국가적인 계획의 일부이므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Q : 한국에도 송도라는 신도시가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라데팡스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A :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교통이다. 기차 또는 전철을 통해 쉽게 올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와 관광의 조화다. 라데팡스는 유럽 최대의 업무단지인 동시에 관광요소가 극대화된 신도시이다. 비즈니스만으로는 공동화현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데팡스에 사람이 살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다.

Q : 기업의 출퇴근 인구 등 유동인구가 많다. 교통 시스템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A : 약 48만평의 비즈니스 지역에 거대한 복층도시 구조를 설치하고, 도로·지하철·철도·주차장 등 모든 교통관련시설을 지하에 설치했다. 그 위에 건축물 및 각종 공간을 조성하는 복층구조를 통해 교통효율을 극대화시켰다. 관광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지하로 다니고 지상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지상공간은 보행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IV. 맺으며

- 이번 연수는 우리시 의원들이 선진 지역의 협동조합 운영 사례 및 도시환경과 건설 등 다양한 분야를 비교 검토해보고,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하는 유럽 문화에 대한 외국의 사례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이탈리아의 볼로냐 주택 협동조합 방문을 통해 양극화, 실업문제, 공동체의 해체 등 자본주의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경제의 성공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이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바람직한 협동조합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지역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 지방정부가 아닌 시민 스스로 당면해 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었다.
- 또한 방문국 대부분이 오래된 건축물과 역사적 유적을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여 관광 산업을 이끌고 있었다. 대규모 도시건설 및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과 조화로운 개발을 이루어내는 모습이 돋보인다.
- 라데팡스 개발지구의 경우 비즈니스 지역과 함께 상업지구, 주거지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경제, 문화 중심의 다기능 복합개발도시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다. 중장기 계획의 중요성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